

'97 수입 개방과 100만 축산 가족의 대응자세

장 일 광
서울우유협동조합 감사

공산품 위주의 수출 경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 시책은 농촌을 경제발전의 뒷전으로 미루어 놓더니 급기야는 경제발전의 희생물로 농축산물의 국내 산업을 위축 또는 중단시키고 수입 농축산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려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가고 있는 인상.

50여년의 일천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낙농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국민 체위 향상이란 국가 중요 산업의 역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소와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자.

공산품 위주의 수출 경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 시책은 농촌을 경제 발전의 뒷전으로 미루어 놓더니 급기야는 경제 발전의 희생물로 농축산물의 국내 산업을 위축 또는 중단시키고 수입 농축산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려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가고 있는 인상이다.

우리농촌에서 목화, 밀 등이 씨가 말랐으며 목화 나무는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를 실정이다.

바야흐로 7년후를 생각하여 보자.

1.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맛 좋은 쇠고기인 한우 맛을 잊게하고 몇 번씩 냉동시켰다 녹였다하여 영양분이 소실된 쇠고기를 고급 쇠고기니 호텔용쇠고기니 하고 다량 공급하므로서 쇠고기 맛을 잃어 버리게하고 저영양 쇠고기 일색으로 공급할 것인가.
2. 세계적인 생산수준과 위생수준에 이르는 신선한 우리나라 우유를 국민들에게 공급치 아

니하고 전지분유를 수입하여 물을 타서 국민에게 공급할 것.

얼마전 우리나라 최대 우유 조합의 연구소에서 우유 두부 시제품을 맛을 보았더니 생유로 만든 우유 두부는 색깔이 희고 신선하며 맛이 아주 좋았으나 전지분유로 만든 두부는 색깔이 누렇게 맛도 생우유로 만든 두부보다 못미침을 알 수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민들의 손으로 가장 위생적으로 생산한 신선한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민 체위의 향상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유제품 수입개방에 생각하여자.

우리나라는 1989년에 GATT의 BOP를 졸업하였다. 우리와 가장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1963년에 BOP를 졸업하고 27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제품의 수입은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본 수상이 미·일 정상회담차 자국 출발인사에서 전 국민에게 우유, 유제품은 절대로 수입할 수 없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하고 출발하는 장면을 TV뉴스로 보았을 때 정말 부럽기만 하였다.

일본의 수입 개방 대응 자세를 살펴보자.

초경제 대국답게 자기 농민을 책임지고 자신있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유 유제품은 국민 색깔 자금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로 설정하고 국가 무역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쌀보다 더 우선순위로 보호 농산물 제 1호로 지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 낙농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셋째, 낙농가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1979년부터 자체 생산조절을 통하여 우유의 안정적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

네째, 막강한 생산자 단체가 단합하여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위원 300명이 가입한 낙정회라는 정치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GATT에서 미개방 12개 농산물 수입 개방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은 인정하나 유제품과 전분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즉 낙농은 식량안보와 국토 보존 차원에서 유지하여야 할 국가 중요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강한 낙농 보호 육성은 의지로 대미협상에서 경제 대국답게 의연히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선진 제국의 실상을 살펴보자.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GATT에 가입하면서 자기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가입하였다.

웨이브(유보조항)가 바로 그것이다.

자기나라 주요 농·축산물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 국내법에 개방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놓았다.

그렇기에 우유와 유제품을 개방한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GATT에 가입할 당시 국내 농·축산물의 보호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유보조항도 없이 가입하였다.

뿐만아니라 국내법상 수입제한 근거를 제정하지도 아니하고 GATT·BOP를 졸업하였으니 우리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그저 어리둥절할 뿐 아니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비교 우위론을 내세워 국가 주요 산업인 축산업의 장려 육성 정책이 아닌 수입 개방으

로 위축 도산 정책을 쓰고 있으니 국민 체위 향상이 심히 우려 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살피 볼 때 수입 개방 압력에 대처 할 100만 축산 가족의 자세는 명확하여지는 것이다.

첫째, 우유와 유제품과 쇠고기는 영원히 수입 개방할 수 없는 국가 주요 산업이라는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진화한 나라들도 수입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이란 공평 타당성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만 유효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리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하여도 공평의 원리가 무시되면 후발 개발국인 우리나라만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 100만 축산 가족은 절대로 승복할 수 없으며 백보를 양보한다 하여도 이웃 나라 일본 개방년도 만큼인 27년 후에나 고려할 문제임을 명확히하여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개정 작업중인 낙농진흥법에 우유 유제품은 주요농산물로 설정하고 국가 무역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셋째, 동 진흥법에 낙농 산업은

국가 산업으로 보호 육성 지원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네째, 우리 낙농인들도 정부의 이상과 같은 굳건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 시행되고 수입 유제품에 의한 원유 과잉이 아닌 국내 생산에 의한 과잉에 대하여는 자체 생산 조절에 적극 응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 생산 조절은 경산우의 도태 조절 방법과 원유의 차등 생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먼저 대단위 목장부터 경산우의 도태조절을 우선하여 생계 유지선에도 못 미치는 농가 부업 낙농을 보호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산과 유통 체제의 개선이다.

현재 국내 유제품의 60%를 가공 판매하고 있는 개인 유업체에서는 우유가 모자라면 갖은 웃음 정책으로 낙농가를 유인하고 남으면 전년도 생산 수준이니 제품으로 유대를 주는 등 남는 장사만 하고 밀지는 일은 낙농가에게 전가시키는 인상을 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개인 유업체에서는(정부주식 30%) 밀루파 등 7종의 이유식(전지분유 함량 30% 정도)을 외국에서 수입판매 하면서 낙농사에게는 일정비율의 유제품 유대 지급을 서슴치 아니하고 있다하니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겸하여 전지분유가 90% 함유된

코코아를 3,600톤이나 수입하고 있음에도 산업피해제소가 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직시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즉각 산업 피해 제소를 하여 수입 유제품의 수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36,000낙농인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을 그저 부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도 지금부터 늦었더라도 시작합시다.

낙농인의 전국 단위 결합체인 한국 낙농육우협회를 활성화 하고 우리들의 생존권은 우리들 스스로가 수호하여야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와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음을 직시하고 굳게 뭉쳐 우리나라의 낙농법을 수호발전시켜 자손만대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낙농 역사를 물려줍시다.

